

# 보물급 고려말 불교 서적 기탁 '눈길'

광주 법문사 주지 월인스님  
장승법수·완당 김정희 서체 등  
한국학호남진흥원에 8점 기탁  
총 8만2000점 국학자료 소장



장승법수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목판본 '장승법수'는 원나라 가수(可遂)가 간행한 수정사본(壽慶寺本)을 저본으로 삼아 1389년(공양왕 1)에 부학대사 자초(自超)가 간행한 불경 용어 사전이다. 책머리에 원나라 구양현의 서문이 있으며 '대승기신론'의 '일심(一心)'이라는 용어로부터 본문이 시작된다.

보물급 가치를 지닌 고려 불교 서적 '장승법수'와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등이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에 기탁돼 눈길을 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법문사 주지 월인스님(月仁, 속명 박도길)으로부터 최근 '장승법수'·'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미타경'·'화엄경' 불교 서적 4책과 완당(阮堂) 김정희 서체가 포함된 12폭 병풍 1점 등을 기탁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법문사는 태고종 사찰로 광주 서구 아파트 밀집 지역에 소재하며 지난 1996년 창건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월인스님은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 총무원장을 맡고 있으며 영산재의식을 재현해 광주시 무형문화제 제23호로 지정됐다. 영산재는 49재를 통해 영혼을 극락으로 천도하는 의식이다.

조일형 연구위원에 따르면 '장승법수' 본문은 대장경에 있는 법수(法數, 단위의 이름과 수치를 붙인 수)를 획수대로 도식화해 용어나 단어를 배열했다. 말미에는 1355년 권연(權演)이 작성한 서문이 있고 같은 해 작성한 우강서식(野江齋式)의 발문이 있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목은 이색(李穡)의 발문이 있는 호암박물관 소장본은 물론이고 발문이 없는 성암고서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이 모

두 보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장승법수'는 보물급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한 목판본 3권 1책인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은 1441년 간행본을 저본으로 1452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말미에 전통도사 주지였던 육미(六尾) 스님이 쓴 발문이 있다. 조 연구위원은 "이 불서는 사경해 몸에 지니거나 독송하면 병을 치료하거나 액운을 없앨 수 있다는 다라니의 신통력을 설교한 불경"이라고 설명했다.

기탁된 불교 서적은 해남 대흥사 주지(1937년~1954년)를 맡았던 응송(應松, 속명 박영희) 스님이 월인스님에게 물려줬다. 응송 스님은 월인스님의 큰아버지도 열반에 들기 전 조카를 불러 불교 서적 4책과 병풍 2벌, 지팡이 2점, 경대 1점 등을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은 "보물급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14세기 고려 말 고려 서적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자료를 기탁해주시는 월인스님께 감사하"며 "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학호남진흥원은 관리는 물론 연구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지금까지 100여 개 문중으로부터 8만2000여 점의 국학자료를 기탁, 기증받

았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이 최근 '제10회 기증·기탁자의 날'(기증·기탁자의 날) 행사를 성료했다.

'옛 자료를 통해 새로운 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200여 명의 기증·기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동구 라마다 플라자호텔 총장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증·기탁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국역서를 비롯해 학술서, 기증·기탁자료집 등 총 100권이 넘는 서적 출간에 대한 자축의 의미도 담겼다.

행사는 최기욱 군자서원장을 비롯해 현삼식 전남종가회장,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 명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남중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대외협력부원장, 최지국 광주연구원장,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정명중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장 등 호남지역 100여 개 문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기욱 군자서원장과 김희태 장흥 영광김씨 삼우당 문중 기증자가 공로패를, 양홍렬 보성 제주양씨 양산향 중가 등 9개 문중이 감사패를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깊어가는 가을 전통예술 속으로...

전통문화관, 26일 '능주씻김굿'·'전통불교 영산회 초청공연'



무등풍류단에 출연하는 능주씻김굿보존회 모습.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제공)

'무등풍류단'과 '토요상설공연' 시리즈 일환으로 두 편 전통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추모공연인 '능주씻김굿'과 불교 의식인 '전통불교 영산회 초청공연'이 바로 그것.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 전통문화관이 오는 26일 오후 2시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능주씻김굿보존회 '故 무형유산일을 기리며'로 막을 올린다.

조동필에 의해 창작된 능주씻김굿은 망자를 위무하는 내용이며 300여 년 동안 원형으로 보존·전승돼 왔다. 혼맛이부더 분향, 선부리, 제석굿과 고폘이, 씻김 및 길땀을 순으로 구성.

다음으로 오후 3시부터 토요상설 일환 '광주전통불교영산회 초청공연'을 볼 수 있다.

1부는 삼귀의, 반야심경을 펼친 뒤 2부에서 영산재를 시연한다. 시련작법, 신중작법, 대령관육, 상주권공 및 관음시식으로 이뤄진 영산재는 제불보살께 공양을 올리는 불교 의식의 일종이다. 사회에 정암 스님.

1992년 설립된 광주전통불교영산회는 영산작법을 통해 잊혀져가는 전통의식을 계승해 왔다.

전통문화팀 송현민 담당은 "전법도생의 사명을 다하는 광주전통불교영산회와 전통을 간직해 온 능주씻김굿보존회의 공연을 만나는 자리"라며 "오후 1시부터 민속놀이와 한복 체험, 연희놀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원민 기자 rubi@kwangju.co.kr

# ACC 창제작 무용극 '척' 서울 상륙

명동예술극장에 유통... '대한민국은 공연중' 무대 올라

ACC 창제작 무용극 '척'이 서울 명동예술극장에 유통돼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재단)에 따르면 '척'은 22일과 23일 명동예술극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은 공연중' 무대에 올랐다. 아시아의 전통적 도량형인 '척(尺)'을 모티브로 신체를 매개로 시공간을 사유하는 방식을 풀어냈다.

'2024 대한민국은 공연중'은 10월 한 달 국립극장을 비롯해 명동예술극장, 예술의 전당 등 곳곳에서 선보이는 대한민국 공연예술축제다. '척'은 명동예술극장의 '또 한 번 빛나는 무용' 프로그램의 하나로 관객과 만난다.

ACC 아시아무용커뮤니티 레퍼토리 공연으로 지난 2021년 제작된 '척'은 안무가 안애순과 ACC가 창제작했다. 지난 4월 국립정동극장을 시작으로 영국 런던 더플레이스, 맨체스터 라우리



'척' 공연 장면.

(ACC재단 제공)

극장 등에 유통됐다. 이번 무대에는 한국 현대무용의 대표 안무가 안애순을 주축으로 안무가 겸 무용수인 한상훈과 김호연 등 모두 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아시아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영상과 기계, 무용수의 움직임 등을 통해 오늘 삶의 기준에 대해 물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獨立' 안중근 의사 유묵 15년 만에 공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오늘부터 115주년 특별전 '안중근 서(書)'

1910년 2월의 어느 날, 중국 뤄순(旅順) 감옥에 있던 안중근(1879~1910)은 붓을 들었다. 자신과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난 일본인 간수 시타라 마사오(設樂正雄)에게 준 글은 두 글자. 간절한 염원과 굳은 의지가 담긴 '獨立(독립)'이었다.

힘 있고 간결하게 쓰인 글자 옆에는 '대한민국(大韓民國)' 안중근이 썼다는 기록을 남겼다. 네 번째 손가락 일부가 없는 왼쪽 손바닥 도장과 함께였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 전에 쓴 이 글씨가 15년 만에 한국에서 공개된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한 의거 115주년 만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안중근의사숭모회, 안중근의사기념관과 함께 이달 24일부터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하얼빈 의거 115주년 기념 특별전 '안중근 서(書)'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안 의사가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고 그해 3월 26일 순국하기까지 약 40일간 옥중에서 남긴 글씨를 통해 그의 정신과 사상을 조명하는 자리다. 보물 13점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에 남아 있는 유묵(遺墨·생전에 쓴 글씨) 18점을 한자리에

모았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높이가 1.5m에 달하는 긴 족자 형태의 유묵이 관람객을 맞는다. 대를 이어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안중근 가문과 안중근 의사의 어린 시절, 천주교 입교와 여러 활동, 안 의사의 애국 계몽활동 등을 보여주는 여러 유묵도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주인공은 단연 '독립'이다. 2009년 전시 이후 약 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이 유묵은 시타라 마사오가 안 의사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후손이 류코쿠대학(龍谷大學) 도서관에 수탁해 관리하고 있다.

박물관은 전시를 준비하면서 전시장 가운데에 가로 3m, 세로 4.5m 크기의 공간을 따로 만들었다. '독립' 글자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느끼도록 신경 쓴 부분이다.

전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